

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

Korea Industrial Waste-Resources Mutual-aid Association

보도해명자료		보도시점	자료배포일	매수
		'11년 7월 8일	'11. 7. 8	2
담당부서	대외협력팀	장기석 사무국장, 조욱래 팀장		
Tel : 02-718-7900				

2011.6.28 인천신문에 보도된 「LH, 청라 비위생 매립폐기물 '골머리」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.

□ 보도 내용(보도매체 : 인천신문)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인천 청라지구 비위생 매립폐기물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음
 - 재활용업체와 소각업체가 서로 이익 다툼으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
 - 매립폐기물 처리 방법 중 소각의 경우 1톤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, 재활용은 1톤당 13만원에 처리할 수 있음
 - 5개 재활용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대표사인 A업체가 폐기물 처리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문제가 발생함
 - 소각업체들은 재활용처리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업체를 고발함
 - 업체간 다툼으로 가연성폐기물의 처리효율이 떨어져 소각·매립으로 처리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수립했지만 재활용처리 업체들의 반발로 진행하지 못한데다가 소각업체도 처리비용을 기존의 1톤당 23만원에서 1톤당 25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각처리도 녹록치 않음

□ 해명 내용

- ① 소각업체와 재활용업체는 청라 비위생매립폐기물과 관련하여 다툼 적이 없음
 - 민간 소각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 청라 비위생 매립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제안한 것이 전부이며 재활용 업체와 매립폐기물 처리를 놓고 다툼적이 없음
- ② 매립폐기물 처리 방법 중 소각의 경우는 현재 수도권 1개 업체가 톤당 230,000원이 아닌 134,000원에 처리하고 있음
 - 청라지구 매립폐기물 중 일부는 현재 수도권 1개 소각업체가 톤당 134,000원에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비용이 톤당 230,000원이 소요된다는 보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
- ③ 재활용처리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소각업체에서 해당업체를 고발한 적이 없음
 - 청라지구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재활용 업체의 위법사항이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되는 한편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에도 제보가 있었으나 동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사업단에 통보만 하였을 뿐 해당업체를 법적으로 고발 내지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음
- ④ 소각업체가 처리비용을 톤당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음
 - 현재 국내 민간소각업체의 폐기물 소각비용은 톤당 10만원 ~ 15만원으로 시장 단가가 형성되어 있어 민간 소각업체는 기존 처리비가 23만원이라는 내용도 금시 초문인 상황에서 25만원으로 처리비의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처리비이므로 동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
- ⑤ 민간 소각업체는 청라 매립폐기물의 이상적인 처리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도된 내용과 같은 다툼과 요구를 한 적이 일체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.